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5년 여름 제71권 2호



코스타리카의 다음 세대를 세울
희망의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5 여름 제71권 2호

02 포토에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습니다

04 2025 상반기 성서 사업 보고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06 커버스토리

코스타리카의 다음 세대를 세울
희망의 성경

10 2025 해외 성서 기증 계획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9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새한글성경』

『새한글성경』을 활용하며 얻는 유익한 점

14 현장 이야기

시리아, 고통의 땅에서 피어난 믿음

16 후원 이야기

20 대한성서공회 소식

1. 2024 세계 성서 번역 현황
2.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3. 제143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 인쇄인·인쇄처 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 기반 회복 사역에 참여한 콜리(Kollie)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습니다

라이베리아성서공회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성경 기반 회복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리(Kollie)는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3살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망의 깊은 늪에 빠졌고, 제 삶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 기반 회복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피폐했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자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서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과 『새한글성경』 온라인 콘텐츠 준비

금년 상반기에는 『새한글성경』 43,654부를 포함하여 총 231,716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4월 8일, 영락교회에서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새한글성경』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한글성경』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여러 성경 역본을 비교하고 성경 어휘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한글성경』 본문을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책의 서문, 짤막한 절별 설명, 용어 해설, 사진, 그림, 지도는 물론, 성서 속의 물건들, 식물들,

동물들에 관한 자료들과 성서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 콘텐츠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한글성경』 번역을 원문에 비추어 여러 역본들과 면밀히 비교·분석한 연구들을 「성경원문연구」 별책으로 발간하여, 목회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향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72개 나라에 98개 언어로 1,760,48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200,513,566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르완다 성서공회 대표들, 미주 지역 성서 출판 서비스 책임자가 방한하여 성서 주문과 아울러 성서 출판 및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포르투갈어권 성서공회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성서 출판에 관하여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위해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에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7개 회원 성서공회에 377,160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국내외 성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2억 2천7백여만 원이 증가한 총 34억 7천2백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국내외 성서 기증 사업을 위해 총 37,307곳(명)의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을 후원하신 교회·기관·개인은 총 34곳(명)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소수 민족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에는 미얀마 자이와어 구약 번역 및 성경 제작[진남제일교회 외 3곳(명) 후원], 미얀마 지페어 성경 제작[예장(백석)총회/주안중앙교회 후원], 멕시코 마자텍어 구약 번역 및 성경 제작[소망교회 후원]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국어 위원들로 구성되어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지난해 개정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교차 검토가 66% 진행되었습니다. 구약은 금년 상반기

에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 본격적인 교차 검토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원문 편집본과 대조하여 그동안 개역성경에 없던 문장 부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회 용어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대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고어는 쉬운 한자어나 현대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원문의 의미와 개역성경의 운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을 적절히 끊거나 어순을 조정하여 현대 독자들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43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5 상반기 성서 사업 보고



국내 성서 보급

231,716부의
성서 보급



해외 성서 보급

72개 나라에 98개 언어로
1,760,48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 성서 기증

37개 나라에
377,160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2억 2천7백여만 원이
증가한 34억 7천여만 원

코스타리카의 다음 세대를 세울 희망의 성경



위치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언어

스페인어 외



종교

가톨릭(50%)
기독교(33%), 기타(17%)
(2024년 기준)



인구

524만 명
(2024년 기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는 인구 약 50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으나, 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몇 년간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33%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약 165만 명에 해당합니다.(출처: UNA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25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빠르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는, 동시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세

대이기도 합니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 기회의 부족, 가정 불화, 폭력과 마약,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위험 속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이들이 말썽과 진리 안에서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스타리카 교회 부흥의 현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목회자가 단 한 권의 성경으로 여러 공동체를 돌보고 있으며, 일부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필사해가며 간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 정글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나귀에 성경을 싣고 가는 모습

합니다. 자동차가 접근할 수 없는 정글 지역에는 작은 나귀에 성경을 실어 마을까지 전달합니다. 번듯한 예배당도, 넉넉한 성경도 없는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코스타리카의 다음 세대가 말씀에 부리를 내려 자라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성경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며 주일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발한 전도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교회는 대부분 임시로 지어진 공간이거

나, 작은 가정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주요 농작물인 커피 국제 가격이 2010년 대비 30~40%가 하락하여(출처: INEC 코스타리카 국가통계연구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은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을 구입하는 것은 일인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의 훈련 부족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내에 신학교가 존재하긴 하지만, 신학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 수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교육의 격차가 큼니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한 큰 수요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며, 목회 사역에 필요한 자료를 비롯해 성경조차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지원하며, 목회자를 위한 훈련과 교재를 제공하여 기독교 공동체 내의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기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신앙으로 세워가고 있으며, 나아가 코스타리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 단편성서를 받은 응아베(Ngäbe) 부족 교회 성도들

“우기에는 농촌 지역에 사는 원주민 공동체와 만나기 어렵습니다. 폭우로 강이 넘치고, 비포장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험한 길을 뚫고 성경을 보급했을 때, 사람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원주민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파야스(Fallas)/코스타리카성서공회
프로그램 책임자-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 다음 세대

코스타리카는 젊은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의 젊은 세대 실업률은 약 24%로, 이들은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은 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출처: INEC 코스타리카 통계청) 이러한 상황은 젊은 세대를 빈곤, 고립, 마약 밀매 등으로 얼룩지게 합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캠프, 학교 성경 보급, 가정 성경 읽기 모임 등 여러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캠프에서는 찬양과 기도, 소그룹 성경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성경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보급된 어린이 성경은 말씀을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후원받은 성경으로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취약계층 어린이 후원 기관과 협력하여 수도 남부의 데삼파라도스(Desamparados) 지역의 3세에서 12세 사이의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옷과 음식

을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전달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세워가기 위해, 가족 단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소그룹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그림 성경을 받은 코스타리카 데삼파라도스(Desamparados) 지역의 어린이

“매일 온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들에게요. 가족 모두가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 루이즈(Ruis)가정 성경 읽기 모임 참여자

코스타리카성서공회의 사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잃기 쉬운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삶의 방향을 찾아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신학 교육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며, 코스타리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코스타리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성경이 필요한 코스타리카
선교 현장 영상 보기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9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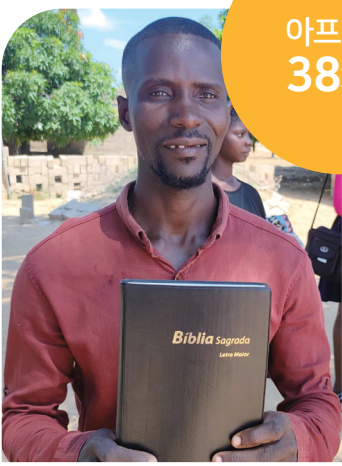
· **굵은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5.04.30. 기준) / 총 1,760,488부 보급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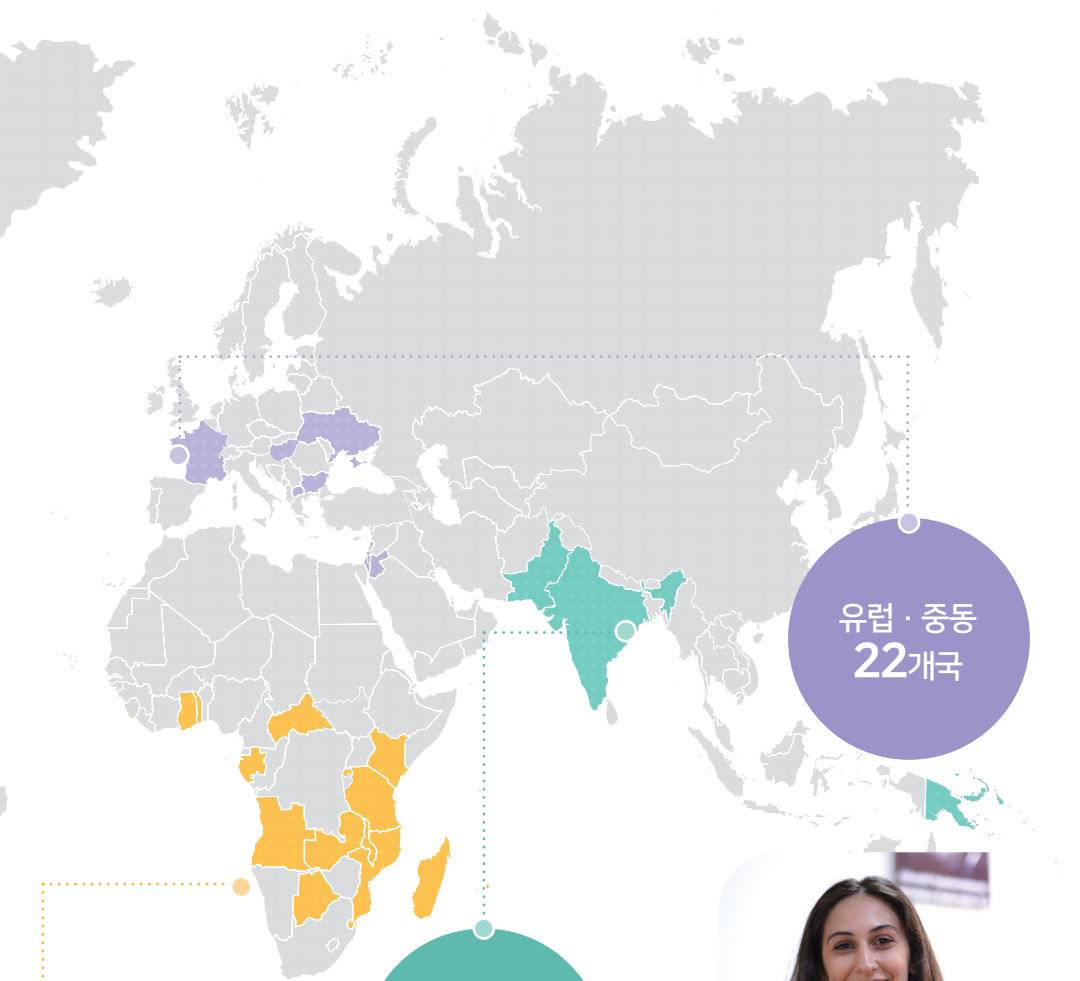
아메리카
19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 중동
22개국

아시아 · 태평양
10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새한글성경』을 활용하며 얻는 유익한 점

김용순(정음중앙교회 부목사)



제가 섬기는 정음중앙교회는, 김선종 담임 목사님께서 번역 위원으로 함께 하신 『새한글 성경』(이하 『새한글』)이 출간되면서, 당회 결의를 통해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으로 『새한글』을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품의 하나로 나누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에서도 『새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금까지 번역된 성경들을 읽으면서, 기존 성경들은 어린이들과 젊은 층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언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새한글』이 출간된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하는 교육부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새한글』을 읽어가며 다른 성경과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쉬워요, 이해돼요, 친근해요.”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한글』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 교육부 전체가 『새한글』로 교체하였습니다.

『새한글』을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들이 『새한글』의 번역을 자신들 세대의 언어로 아주 친근감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일찍 오는 초등부 어린이들은 주일 아침 예배 전 약 30분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학생들은 청년부 부서 예배 후 성경을 통독하고 나눔을 합니다. 기존 성경 번역본들과 비교했을 때 『새한글』은 성경 통독 시 독자의 이해도 면에서 청년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그룹 신앙훈련에서 『새한글』 신약 통독을 진행합니다.

기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연령층인 어른 성도들과 ‘소그룹 신앙훈련’ 시간을 통해 『새한글』 신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 성도

분들이 간혹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투가 낮설어요. 그런데 마음에 확 다가오긴 합니다.” 이는 참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그룹 신앙훈련 기간을 통해 『새한글』이 더 많은 이점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3. 박사 논문에 『새한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번역 성경이 출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며 여러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활용해 온 기간이 그리 길진 않지만 제가 느낀 『새한글』의 특징 몇 가지는, 지역명과

인물명을 더욱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시도한 것과 원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최대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신중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욱 친밀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성경 번역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새한글』은 이 시대에 말씀을 독자들의 입안으로 술술 잘 들어가게 하여 꿀보다 더 달게 해 주고, 나아가 성경을 더 자주 펼쳐 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한글』 번역을 위해 모든 면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육부



『새한글』 신약 통독 소그룹 반



시리아, 고통의 땅에서 피어난 믿음

*이 글은 노르웨이성서공회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목숨을 걸고 작은 보트로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들

“우리는 시리아를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집에 머물 용기도 없다는 한 시리아 기독교 여성의 이 한마디는, 오늘날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11년 시작된 내전과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이들의 삶은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내전 이전, 약 15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 수는 현재 50만 명 이하로 추정됩니다. 지금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존의 위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성서공회 올슨(Bernt G. Olsen) 총무는 올해 초 시리아를 직접 방문해 현지 기독교 공동체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기독교인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는 2000년부터 약 24년간 시리아를 통치하며, 장기적 내전과 인권 침해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축출된 이후 시리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권 붕괴가 안정과 회복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새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인 데다가, 권력 공백 속에서 각지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 수많은 무장 세력과 민병대, 지역 군벌들 대부분은 무슬림이기에, 기독교인은 더욱 큰 위협과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출애굽

시리아 기독교인 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가 심각했던 내전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많은 기독교인이 폭력, 납치, 박해를 피해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공동체도 지속적인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변화하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일부는 해외로 탈출했으며, 일부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

한 채, 더욱 불안정해진 일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올슨 총무가 만난 기독교 청년들은 학업을 마치는 대로 시리아를 떠날 계획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난 속 희망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시리아의 기독교인이 당면한 고립감과 절망에 깊이 공감하며, 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과 신앙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리아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슨(Olsen) 총무/노르웨이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협력을 통해 시리아에 성경을 지원하는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리아에 아랍어 성경 약 4,000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성경은 수많은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킬 힘이 되고 있습니다.

라일라(Layla)는 시리아 내전으로 가족을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시리아 난민

잃고 고향인 시리아를 떠나 요르단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공회를 통해 참여한 성경 기반 회복 사역에서 받은 성경을 묵상하며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기반 회복 사역에 참여하며 저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견디셨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 라일라(Layla)/시리아 난민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지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기증 예식에 참석한 김영례 권사 가정

르완다에 용서와 사랑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르완다 <킨야르완다어 성경> 8,000부 기증



2025년 3월 4일,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8,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례 권사 가정은故왕기일 장로의 유지에 따라 8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번 르완다까지 9개 나라에 총 48,822부의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7월, 김영례 권사는 아프리카 르완다 성경 보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반포하는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저희를 찾아와 르완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희망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권사님께서서는 르완다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라며 기대를 전

했습니다.

김영례 권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화해와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르완다 땅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르완다에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용서와 사랑이 퍼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르완다는 1994년 발생한 종족 분쟁인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빈곤과 높은 문맹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죄와 알코올, 마약 중독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후원하는 <킨야르완다어 성경> 8,000부는 역사적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고자 하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며,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서울광염교회 성도들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광염교회 - 그리스 <그리스어 신약> 14,500부, 요르단 <아랍어 성경> 3,500부,
토고 <프랑스어 성경> 5,700부,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어 성경> 5,124부,
콜롬비아 <나사어 성경> 3,600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어 성경> 3,715부 기증



2025년 3월 21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6개국에 성경 36,139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서울광염교회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제작, 반포되는 성경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스성서공회 미카일 사치지아니스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 총무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로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6개국은 각각 처한 어려움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간절히 성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 크로아티아에 전해져 위로와 소망의 빛을 전할 것이며,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요르단과 토고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정치 상황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는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전할 것이며, 콜롬비아 원주민 파에즈족은 처음으로 전해지는 모국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창조교회 성도들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창조교회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어 성경> 1,400부, 세르비아 <세르비아어 성경> 5,310부 기증



2025년 4월 4일,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유럽 동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각각 <크로아티아어 성경> 1,400부, <세르비아어 성경> 5,31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창조교회는 2015년부터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8개 나라에 총 40,353부의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유럽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의 교회들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크로아티아성서공회 다미르 리포브섹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은 전도와 성경 공부에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앞으로 크로아티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성경 보급

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고, 세르비아성서공회 베라 미틱 총무는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져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환난 중에 위로를 주며, 삶을 변화시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발칸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며 역사적 분쟁과 민족·종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이 남아있으며, 많은 국가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문제를 겪고 있고, 경제·정치적 불안정 속에 놓여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전해지는 <크로아티아어 성경> 1,400부와 세르비아에 전해지는 <세르비아어 성경> 5,310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실업의 문제로 삶의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져 신앙을 격려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진천중앙교회, 이천신하교회 성도들(왼쪽부터)

라오스에 성경을 보냅니다

진천중앙교회 - 라오스 <라오어 성경> 3,700부 / 이천신하교회 - 라오스 <라오어 성경> 1,600부 기증



2025년 4월 18일과 25일, 진천중앙교회(김우중 목사)와 이천신하교회(홍성한 목사)의 후원으로 라오스에 <라오어 성경>을 각각 3,700부, 1,6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진천중앙교회 김용신 목사는 “라오스에 보내지는 성경이 성경을 필요로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라며 성경을 통해 라오스에 일어날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천신하교회 홍성한 목사는 “성경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믿음이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이 성경이 라오스 땅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라며 라오스로 전해지는 성경에 대한 기대와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라오스성서공회 파이라나 사하싸와스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영혼을 채우고,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입니다. 라오스에 성경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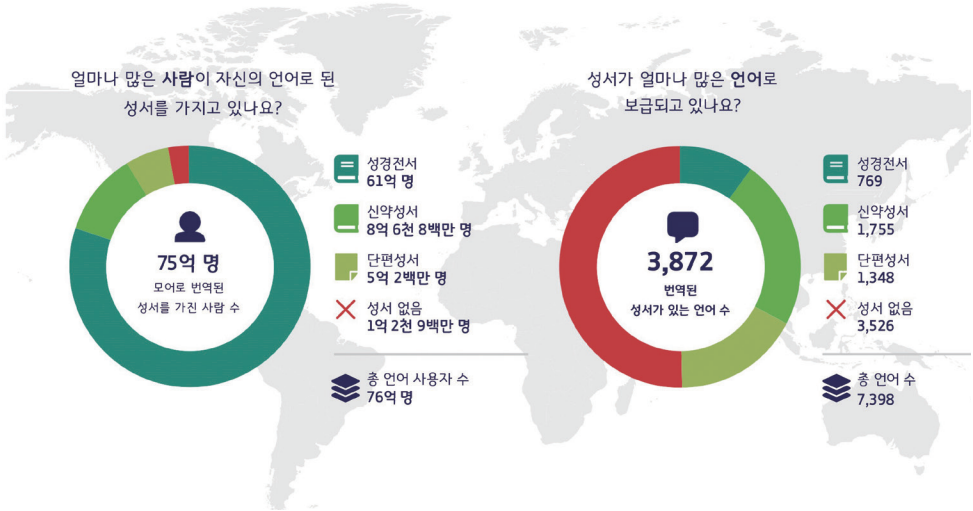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라오스는 국민의 약 69%가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국가입니다. 불교는 이들의 일상과 문화, 가치관 등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포교 및 선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라오스의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는 1975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면서 경제 발전이 더디고,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미비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국민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들도 생계를 이어가기 버거운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전해지는 <라오어 성경> 5,300부는 불교 중심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1 2024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전 세계, 3,872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 2024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인구, 언어 통계

2024년, 전 세계 5억 8천만 명이 사용하는 105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더크 게버스(Dirk Gevers) 목사는 “성서공회들이 2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끌어 온 세계 성서 번역 운동을 통해 2024년에 6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성서를 보급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서공회의 핵심 사명은 성경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언어적 다양

성 또한 보존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총 7,398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6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신약성서는 1,755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348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직 3,526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전 세계 61억 명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

람들은 8억 6천 8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단편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5억 2백만 명입니다. 하지만 1억 2천 9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하여 74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6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16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42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번역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2024년 11월, 비사어(Bissa) 성경과 레레어(Lyéle) 성경의 봉헌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랜 세월 모국어

성경을 기다려온 비사 부족과 레레 부족에게 큰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서울광영교회의 후원을 받아 비사어와 레레어 첫 번역 성경을 제작·기증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모든 언어로 성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38년까지 1,200개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큰 비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880개는 첫 번역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320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번역이거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 197개의 번역이 완성되었고, 425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



▲ 레레어(Lyéle) 첫 번역 성경의 도착을 기뻐하는 부르키나파소 레레 부족 사람들

2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영락교회)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4월 8 일(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목사) 본당에서 『새한글성경』의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발간된 『새한글성경』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으로, 원문의 의미와 구조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21세기 다매체 시대에 적합한 현대 한국어의 표현과 문법을 고려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2011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작되어 총 13년간 진행되었으며,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번역과 검토에 참여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는 대한성서공회 김경원 이사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이선균 부이사장이 기도하고, 정명철 이사가 요한계시록 1:1~3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위임목사)는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한글성경』 요한계시록 1:3에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성도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사람”을 단수형으로 번역한 것은 성서 시대에 말씀을 읽어 주던 특별한 사명이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을 복수로 번역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말씀의 번역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하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두희 소장이 『새한글성경』 번역 과정과 특징을 보고하였으며, 양병희 이사가 『새한글성경』의 보급을 위한 기도를, 김동권 이사가 축도를 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권의현 사장의 환영사와 『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 박동현 교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두희 소장이 사회를 맡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6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김동혁 교수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 —’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형대 교수는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백석대학교 기독교



▲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교학부 유선명 교수는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욕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를, 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 이승문 교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이수인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권순희 교수는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은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한국어 사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3 제143회 정기이사회 개최



▲ 신 임원 소개(왼쪽부터 회계 조성봉 목사, 이사장 이선균 목사, 서기 김경원 목사, 부이사장 양병희 목사)

대한성서공회 제143회 정기이사회가 2025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 기도회에서는 박재학 목사(광명교회)가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 대표로 김경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가 소개되고,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출판·보급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

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교단 대표로 김장환 신부(대한성공회)가 선임되었고, 신 임원에는 이사장 이선균 목사, 부이사장 양병희 목사, 서기 김경원 목사, 회계 조성봉 목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는 김동권 목사, 김순권 목사, 김현배 목사, 정하봉 목사, 손인웅 목사, 김재곤 목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희 번역담당 총무를 재선임하였습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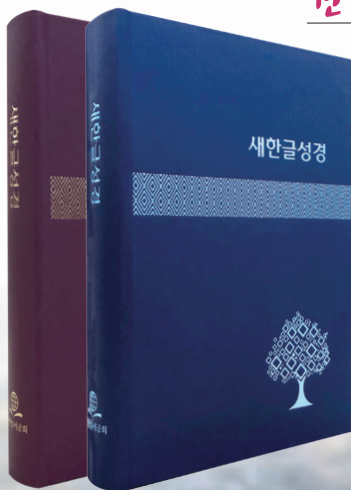
새한글성경

Ch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공인역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원문에 더 가깝게, 읽기는 더 쉽게



원문의 구조, 어원, 어순을 살린 번역
문학 장르에 따른 다채로운 문체

쉽고 간결한 문장
다양한 높임법
새롭고 참신한 어휘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

교회 전통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감감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시편 23장 4절 중에서-

★ **공인역 성경** :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한 성경으로, 13년 동안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여러 단계를 거쳐 번역을 완료한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구입 문의 반포부 02-2103-8847